

# “제네시스, 글로벌 톱10 진입... 올 판매량 22만대 목표”

장재훈 현대차·제네시스 대표이사  
“작년 연간 판매량 20만대 돌파  
H 아쿠라, 인피니티 이미 초월”  
플래그십 세단 G90 2만대 목표

현대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지난해 연간 글로벌 판매량 20만대를 돌파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들인 제네시스는 2015년 출범 이후 6년 만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네시스는 올해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 22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재훈 현대차·제네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시 '제네시스 수지'에서 “지난해 제네시스 연간 글로벌 판매가 20만대를 돌파했다”며 “이미 있는 부분은 럭셔리 톱10에 들어가 (일본) 혼다 아쿠라나 닌산 인피니티를 제네시스가 이미 초월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



제네시스 장재훈 사장이 G90 미디어 이벤트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라인업 보강과 해외 진출 확대, 미국 시장 판매량 증가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GV80을 출시한 이후 전년 대비 202%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 여기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GV80을 몰다가 사고가 났지만 기적처럼 큰 부상을 입지 않으면서 브랜드의 명성도 상승했다.

장 사장은 “올해 제네시스의 글로벌 판매는 21만5000대에서 22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 “모든 완성차 브랜드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상반기까지는 공급차질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며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유럽, 중국, 호주, 중동 등 이미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 사장은 “유럽은 럭셔리의 본고장

인 만큼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들어갈 것”이라며 “중국도 상해, 청두 등 4개 지역의 브랜드 거점을 구축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판매를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는 이번에 출시한 신형 플래그십 세단 G90의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2만대로 잡았다.

장 사장은 “G90은 글로벌 연평균 2만대 판매를 목표로 한국 시장은 물론 북미,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며 “더 많은 지역의 고객에게 제네시스 플래그십 경험을 전달하고 글로벌 고급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레벨3 수준의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차도 연내에 출시된다. 장 사장은 “제네시스 G90 자율주행 3단계 적용을 올해 국내에서 4분기에 하려고 한다”며 “각 국가별로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60km 이하에서 운전자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주행 조건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전동화 모델은 기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

MP 외에 별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네시스 G90은 고객의 이동을 최대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했다. G90에는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가장 우아한 외관과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한 실내, 편안한 이동을 돕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륜 조향(RWS),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등 주행 사양이 적용됐다.

또 승차부터 주행과 주차까지 새로운 자동화 경험을 선사하는 이지 클로즈, 직접식 그립 감지 시스템, 광각 카메라 기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23스피커)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구현하는 버추얼 베뉴(가상 공간), 한 번의 조작으로 실내 조명·음악·향기 등을 최적화해 승객의 기분 전환을 돕는 무드 큐레이터 등 신규 감성 사양이 다양하게 탑재됐다.

G90의 판매 가격은 세단 8957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 롱휠베이스 1억6557만원부터 시작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전자, 실내공기 환기 AI가 알아서 ‘척척’

시스템 에어컨과 연동 환기시스템  
소음·열손실 적고, 속도 두배 빨라

LG전자가 인공지능으로 집 공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들었다.

LG전자는 13일 인공지능이 실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최적 운전 조건을 찾아 알아서 집안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가정용 환기시스템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대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집 안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냉난방 중일 때도 창문을 열지 않고 실내를 환기시킬 수 있다.

특히 LG 가정용 환기시스템은 업계 최초로 시스템에어컨과 연동해 최적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을 갖췄다. 실외 공기 환기와 온도, 습도 등 상태까지 분



LG 가정용 환기 시스템.

/LG전자

석해 최적 운전 조건으로 알아서 작동한다. 환기시스템을 단독 사용할 때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설명이다.

위생 관리 기능도 차별화했다. 실내로 들어오는 먼지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프리필터에 UV LED로 자동 살균하는 UV나노 기능을 적용하면서다. 소음도 적다. 특강풍 모드에서도 약 28~

30데시벨에 불과해 도서관 수준보다 낮다.

열 손실도 적다. 고효율 전열 교환기를 통해서다. KS표준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전열교환기를 통해 냉방 시 약 60%, 난방 시 약 70%의 냉난방 에너지를 회수해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재용 기자 juk@

## 포스코인터, 전기차 부품 연간 수주액 4억弗 돌파

최근 베트남 기업과 8500만弗 계약

전통적 트레이딩 사업구조를 벗어나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기차 부품을 수주를 잇달아 성사시켰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베트남 전기차 회사인 빈패스트와 전기차 부품 8500만 달러(약1009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하프샤프트(Halfshaft)는 배터리전기차 차량에서 구동축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로써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전기차 부품 수주 금액이 약 1년 동안 4억달러(약 4748억원)를 돌파했다. 빈패스트와 계약한 2020년 하반기 5500만 달러(약 653억원), 지난해 상반기 9300만 달러(1104억원)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또 미국 신생 전기차 업체 리비안 등과도 1억7000만달러의 부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과의 동반 상생을 기반으로 전기차 부품시장에서 지배력을 강

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부품시장에 전기차 모터 부품 및 전기차 구동 부품 중심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차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미, 유럽 지역 등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 TV신제품, 독일서 시청 안전성 인증

TDE·UL서 아이케어인증 등 받아

삼성전자 TV 신제품들이 수준 높은 시청 안전성과 색상 정확도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2022년형 라이프스타일 TV로 독일 VDE와 UL에서 각각 ‘아이 케어 인증’과 ‘눈부심 방지 검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VDE의 아이 케어 인증 평가 항목은 ▲눈에 대한 안전성 ▲멜라토닌 억제 수준 ▲화면 깜빡임 무해성 ▲화질 균일도 ▲색 정확도 등으로 구성 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규정한 조명의 유해성 등급 분류 방법을 따른다.

삼성 라이프스타일 TV는 블루라이트 방출량과 멜라토닌 억제 수치 모두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인정 받았다. 눈의 피로감이나 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 깜빡임도 기준을 충족했다. T

V 콘텐츠 시청 시 얼마나 눈이 편안한지를 평가하는 색상 정확도와 화질 균일도 항목에서도 우수성을 확인했다.

UL은 더 프레임을 자체 ‘눈부심 방지 검증’ 기준을 만족한 최초의 TV라고 극찬했다. 눈부심 방지 검증은 국제조명위원회(CIE)가 공인한 눈부심 평가법 UGR을 기준으로 300룩스(lx)와 어두운 조명인 70룩스(lx) 환경에서 ▲외부 빛이 TV 표면에 반사되어도 화면의 물체가 잘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반사 눈부심’ ▲TV 화면 밝기가 눈부시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불쾌 눈부심’ ▲깜빡임 암실에서 TV를 봐도 눈부시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불능 눈부심’ 항목 등을 충족한 것.

삼성전자는 2022년형 라이프스타일 TV에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매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재용 기자

## “인천 송도에 10만평 규모 부지매입 검토”

>> 1면 ‘삼바, 4공장 10월 가동’서 계속

존 림 대표는 “올해 2분기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승인을 목표로 기존 공장 내 mRNA 기반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라며 “미국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의 mRNA 백신 임상용 원료의약품을 2분기부터 생산해 원재 생산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 송도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항체의약품 대량 생산시설인 6공장 및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능력 격차를 벌려 나갈 방침이다.

존 림 대표는 “기존 공장 부지보다 1.3배 가량 더 큰 10만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분기까지 계약을 마칠 계획”이라며 “6공장을 포함 4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거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존 림 대표는 “현재 한국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구개발(R&D) 센터에 집중된 글로벌 거점을 미국 보스턴과 중국,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생산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축을 확장하여 글로벌 최고 CMO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